주가	환율	금리
+14.52	-6.00	+0.02
1,442.28 (코스피지수)	925.80원 (원/달러)	4.85%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4.27	(+0.84)
다우(19일)	12,471.32	(+30.05)
나스닥(19일)	2,429.55	(-6.02)
닛케이	17,011.04	(+234.16)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8.07엔	(+0.04)
유로 달러 환율	1.3221달러	(-1.05)
3년만기 회사채	5.21%	(+0.02)
콜금리	4.49%	(보합)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대표 사임
대우건설 대표이사 맡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대우건설 대표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20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9일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서 사퇴했으며, 이에 따라 금호산업 대표이사는 신훈, 이원태, 이연구, 김성산씨만 남게 됐다.

박 회장의 이번 사임은 22일 대우건설 주총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게 금호아시아나측의 설명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양항 여천부두 민자로 내년 착공

광양항 여천일반부두가 민간투자로 내년 하반기 착공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민간사업 실시협약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인 광양항 여천일반부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게 되며 총사업비 572억원이 투입돼 2만t급 2선석으로 건설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농림부 성공사례집 실린 '여성농군' 무안 이정옥씨

'행복한 고구마' 年 6억 소득

6만평 농장서 올 300 t 수확… 웰빙식품 '불티'
전남 안복자·고효숙씨 등 함께…경영비법 소개

이정옥씨(52·무안군 현경면)는 6만여평의 '새터농장'에서 올해 300t의 '행복한 고구마'를 생산, 6억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속살이 여섯가지 색깔을 낸다고 해서 '육색 고구마'로도 불리는 '행복한 고구마'는 서울·부산 등 전국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씨는 80년대 초반 유기농 양파농사에 도전했다가 고구마로 작목을 바꿨다.

85년부터 유기질비료를 생산, 본격적인 유기영농에 도전해 지난 97년 고구마로는 전국에서 처음 무농약 인증을 받은데 이어 2003년 유기재배인증을 획득했다.

"매년 인근 농가를 훑으며 수백t에 달하는 축산퇴비, 생선찌꺼기, 깻묵 등을 끌어모아 발효시키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땅처럼 은근과 끈기가 없으면 진정한 농군이 되기 힘들죠."

이씨는 "고구마 외에 무와 배추, 당근 등으로 유기농법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2004년 8월 '행복한 고구마가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제 1회 고구마축제를 열어 전국에서 온 5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행복한 농촌체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농림부가 이씨를 포함한 대표적 여성농업인 15명의 성공 이야기와 경영비법 등을 담아 '여성농사꾼의 유쾌한 성공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주인공 15명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협대학교 박민선 교수, 한국농업전문학교 김종숙 교수 등의 추천을 받아 농림부와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선정했다.

이 책에는 이씨 외에 전남지역에서 안복자씨(담양)와 고효숙씨(영암) 등 3명의 성공사례가 실려 있다.

안씨는 2001년 '안복자 한과'를 창업, 올해부터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전통음식 명인이며 고씨는 '고효숙 단감'을 전국에 알린 신지식인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이정옥씨가 지난 가을 남편과 함께 무안 '새터농장'에서 '행복한 고구마'를 캐며 활짝 웃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내년경기 회복세

韓銀, 생산·소비 성장 예고
취업률 등 고용사정은 '흐림'

내년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전체적으로는 회복세가 다소 완만해질 전망이지만 하반기부터는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힘입어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생산과 소비는 느리게나마 성장세가 예상되고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등 전망이 밝은데 반해 고용사정은 개선이 지연되고 부동산가격은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07년 광주·전남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광주의 경우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남은 생산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자동차와 조선분야는 호조세가 지속되겠지만 세계경기 둔화와 단가하락,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가전·반도체·석유화학·정유·철강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소비는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은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규모가 작고 영세한 슈퍼마켓은 체감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안정세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 말의 교통요금 인상과 내년초로 예정된 상·하수도 요금(7.2~11.8%), 건강보험 수가(2.3%), 중·고교 납입금(4.0%), 국공립대 납입금(9.0%)의 잇딴 인상으로 불안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가격은 아파트와 토지 모두 전반적인 안정세속에 나주 혁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에서 풀릴 예정인 대규모 토지보상금의 향방에 따라 지역별로 불안한 움직임도 예상된다.

고용사정은 올해 1만3천여명의 취업자 수 감소에 이어 내년에도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채용 기피와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영농환경 악화로 농업인구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흥 농촌총각 株神됐네
〈주신〉

주식로또 1등 첫 당첨
6억원 대박 터뜨려

마침내 터진 주식로또 1등 당첨자가 고흥에 사는 20대 취업준비생으로 밝혀져 화제다.

주식로또를 발행하는 '레드폭스아이'는 지난 19일 주식로또 1등에 당첨돼 6억770만원을 거머지게 된 행운아가 28세의 농촌 총각인 윤모씨라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조합구매로 상금이 6억원이 넘는 1등 뿐만 아니라, 2등에도 9장이나 동시에 당첨되는 기염을 토했다. 윤씨는 3년전 군대를 제대한 후 고향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주식투자법을 공부하고 실전투자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폭스아이 관계자는 "윤씨는 지난 2월 2일 첫 발매 이후 거의 매회 10~20장씩 꾸준히 주식로또를 구입해왔다"며 "펀드매니저, 증권회사 직원 등 전국의 내로라하는 전문투자가들을 물리친 것을 보면 '주신(株神)'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